

제3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 나의 걸음에 발을 맞추어줄 사람이 좋습니다

나의 걸음에 발을 맞추어줄 사람이 좋습니다. 왜 이리 느리냐. 내 손 잡고 질질 끌고가는 사람보다는 "천천히 가자 관찰의 시간 많아." 나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세상을 걸어갈 사람.

홀리는 내 앞에서 함께 밥 한끼 먹는 사람이 좋습니다. 왜 홀리나 똑바로 먹지 못하나 다그치는 사람보다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휴지로 닦아주며 미소 띄우는 사람

...(졸임)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면 험난한 세상 즐겁고 험차게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이 시는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 제3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에서 낭송된 홍현승(자운고 3년·뇌성마비)군의 시 '나는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이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해인삼매(海印三昧)의 경지에 들어 우주의 삼라만상이 서로 상의·상관 돼 있음을 깨달으셨다. 고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협력하고 화합할 때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흡모하며 실천하는 이들이 있다. 부처님을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 아래'가 그들이다.

'보리수 아래'는 장애인 불자들의 모임을 만들어보자는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의 제안으로 2006년 7월 구성돼 150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시 창작 부분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시낭송회를 여는 등 뜨거운 창작 열을 불태워 왔다.

'보리수 아래'가 펼친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는 이번이 세번째다.

행사는 권오웅 시인의 시낭송으로 시작했다. 권 시인은 주변사람의 도움 없이는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든 장애인이다. 그는 무대

## 봉화 청량사 주지 스님 제안으로 150여 회원 활동 시낭송회 등 뜨거운 창작열 불태워



정상석 시인의 시 '일곱 빛깔 무지개와 동자 스님'을 이운희씨가 낭송하고 있다.



관음무용단이 보살 춤 '홀로 핀 연꽃, 마음의 혼불이 되어'를 공연하고 있다. 관음무용단의 몸짓은 한 송이 연꽃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아름다우면서도 절제된 동작에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여섯 손가락 피아니스트 김예지양이 리스트(F.List)의 '사랑의 꿈(Liebestraume)'을 연주하고 있다. 사랑의 꿈이란 제목으로 알려진 이 아름다운 피아노 소곡은 리스트가 자신이 작곡한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를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작품이다.

에 올라 가까스로 마이크를 잡아들었다. 그래도 자신의 시 '행복을 위해'를 낭송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행복해보였다. 가슴을 졸이던 관객들도 이젠 편안한 듯 미소를 지었다.

이어 이운희씨가 춘천시 장애인 문화상을 수상했던 정상석(뇌성마비) 시인의 '일곱 빛깔 무지개와 동자스님'을 대신 낭송했다.

시에서 말하고 있는 동자 스님은 정상석씨가 아닌가 싶었다. 이 씨의 옆에서 자신의 시를 들고 있는 정상석 시인의 웃는 모습은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그 중심(眞心)이 주옥같은 시를 쓰게 했을 것이다.

조계종불교위원회·청량사·화계사·좋은빛 풍경소리가 후원한 이번 음악회는 권오웅·정상석·최명숙·이경남·홍현승·서지영 등 장애인들이 참여해 시와 음악이 함께 하는 문화마당을 연출했다.

초청 시인으로는 인터넷 마음공부 방송 유나의 진행자로 알려진 김재진, 한국문인협회 정필자 시인이 참여했다. 음악에는 뇌성마비

장애인 출신의 여섯 손가락 피아니스트 김예지양과 가수 최현아, 작곡가 서혁신, 소프라노 박소림 씨 등이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교원장 해홍 스님,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 현대 불교문인협회장 수완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이 기적 같다고 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느끼고 100%로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 이전 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가 춤추듯 다가 올 때를 느낀다. 누구는 기적 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혼구를 잡는 소리라고도 한다.

보리수 아래 회원들의 삶은 매 순간 기적이다.

보리수 아래 대표 최명숙씨는 인사말을 통해 "너무 떨리고 기뻐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 보리수 아래가 있기까지 씨앗을 심어준 지현 스님, 이종만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보리수 아래는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있는 시인들이 작곡가 가수들과 손잡고 창작시를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한 음반을 벌써 3집까지 냈다.

최명숙씨는 그동안 희노애락을 같이한, 앞으로도 함께할 동료 회원들에게도 한마디 건넸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장애인이란 말로 동정표를 사지 않고, 노력하고 정진해 실력으로 인정받습니다. 장애를 가진 모습 그대로 성장합니다."

뇌성마비로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관객들은 차분하게 그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박수를 받은 그녀는 행복한 웃음과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보리수 아래 씨앗을 뿌린 장본인, 봉화 청량사 주지 스님은 "장애인 법회를 보는 곳이 드물다. 휠체어를 타고 예불을 보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행사에서 선보인 17개 팀의 공연은 하나하나가 다 주옥같았다.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적 감성을 지니고 있는 보리수 아래 회원들의 음성공양은 밤하늘보다 짙게 무르익어갔다.

글=박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저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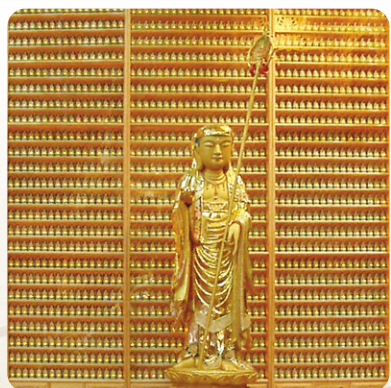
연등 저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미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아름다운 등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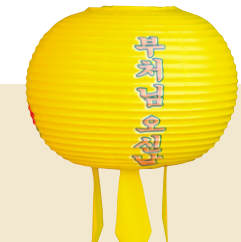
영가등



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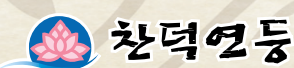
육바리밀 만월등(육바리밀 주름등)



팔각봉촉접등



종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 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